제10강 천승세「혜자의 눈꽃」

(1교시)

천승세「혜자의 눈꽃」/ 1978 『이상문학상 작품집』, 문학사상사

1. 작가연보

1939년 전남 목포 출생
성균관대 국문과 졸업
1958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점례와 소」등단
1964년 경향신문 신춘문예에 희곡「물꼬」입선
국립극장 현상모집에「만선(滿船)」당선
1965년 제1회 한국연극영화예술상 희곡상 수상
1975년 제2회「황구의 비명」,「폭염」만해문학상 수상
1982년 제4회 성옥문화상 예술부문 대상 수상
1986년 『포대령』,『이차도복순전』

2. 경향 및 특징

그는 인정주의에 입각하여 인간다운 삶의 가치를 정의 세계에서 찾으려는 한국적 휴머니즘을 문학적으로 승화시켰다.「점례와 소」,「누락골 이야기」등 천승세의 전반기 작품들에는 1920, 30년대 나도향, 김유정 등과 빈궁문학의 전통을 잇는 토속적 생활 현실의 세계가 주요 주제로 다루어진다. 이후 자연주의적 묘사의 핍진성에 치중하면서 장인적 집중력을 발휘하던 그는 1970년대 들어 현실에 대한 인식을 더욱 투철하게 가지면서「낙월도」,「신궁」,「불」,「황구의 비명」,「의봉 의숙」과 같은 대표작들을 발표하였다. 민중의 삶을 사실적으로 그리는 그의 소설은 민족사의 총체적 진실에 육박해 있다. 또한 그의 작품은 토속어의 보고이며, 특히 몇몇 작품에 보이는 무속의 생생한 재현은 중요한 민속자료로서의 가치도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높다고 할 수 있다.

3. 줄거리

가난 때문에 산언덕의 사글세방에 사는 화자는 어느 날 폐병말기의 정신질환자인 여인과 어린 딸을 보게 된다. 두 사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언제나 소녀가 발로 찍어 만든 눈꽃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눈꽃 중앙에는 물감으로 보이는 노란색이 뿌려져 있었는데 화자는 그것을 보고 의문을 품는다. 그 여인은 화자가 사는 방 유리창문에 손가락으로 야릇한 문양을 그리며 화자의 곁을 서성이고 그럴 때면 여인에게 소녀의 할머니는 나와서 욕을 하며 끌고 간다. 며칠 동안 여인과 소녀가 보이지 않고 화자가 산책 중 눈밭에서 오줌을 누고 있을 때, 소녀가 뛰어오며 자신의 엄마가 죽었다고 이제는 화자에게 오줌을 누면 자신이 눈꽃을 만들어 주겠다고 한다.

4. 시점

1인칭 관찰자 시점

→ 작품 속의 '나'가 관찰자의 입장에서 주 인물인 혜자와 여인, 그리고 혜자 할머니의 행동들을 세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이야기는 작품 속 '나'의 눈에 비친 대로 전개되었다. 그래서 크게 복잡하지 않게 작품의 전체적인 스토리나 배경 등을 알 수 있다.

5. 시대적 배경

<시간적 배경>

작품 속에서 '나'가 살고 있는 집의 배경을 보면 알 수가 있다.

'보증금 없이 월 이천 원 사글세의 셋방이라는~ '으로 미루어 볼 때 70년대 초반쯤이라고 짐작된다.

<공간적 배경>

우이동 골짜기의 설경을 배경, 눈이 아주 많이 내린 한 겨울

6. 문체의 특징

경험을 토대로 한 섬세하고 부드러운 문체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갔다. 독자로 하여금 연민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감각적인 문체이다. 공간적 배경인 우이동 골짜기의 설경을 그대로 가져다 놓은 듯한 세밀한 묘사가 돋보인다.

7. 문예사조

낭만적 사실주의

8. 구성상의 특징

현재 → 과거

(회상을 통해 이야기를 구성)

9. 상징성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혜자의 눈꽃이라는 제목은 작품의 내용과 긴밀하게 연관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제목의 표제만 보면 혜자가 좋아하는 꽃 내지는 눈 속에서 피어나는 꽃으로만 보이지만 작품 속 내용을 읽게 되면 표면적 의미와는 다른, 결말을 유도한 상징적 의미를 가졌다고 볼 수 있다.

10. 묘사

<인물묘사>

1. 혜자 묘사

- 그 애는 바지주머니에다 두 손을 찌른 채 깡충깡충 뛰어 제 집으로 돌아가곤 했다. 그럴 때면 그 애의 짧은 무릎께에까지 뿌연 눈가루가 일고 털모자 끝에서 달랑대는 털실방울이 시계추처럼 좌우로 나풀거리던 것이다. 혜자는 여인의 뒤를 바짝바짝 따르며 얼굴을 떨구고 있었는데 혜자의 눈길은 신통스럽게도 여인이 밟고 지나간 눈밭에만 못 박혀 있을 뿐 다른 데를 보진 않던 것이다. (p.183)

- 혜자는 다소 맥이 빠진 듯한, 그래서 여느 때보다도 더 측은해 뵈는 그런 얼굴로, 전자시계의 초침처럼 천천히 맴돌이를 하며 정성껏 꽃잎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었다. (p.193)

2. 여인 묘사

- 백지장처럼 새하얀 얼굴. 크고 맑되 생기가 없는 눈. 그리고 퍼런 힘줄이 드러나도록 깡마른 손목—나는 치마 끝에 드러난 여인의 맨발을 내려다보며 섬뜩한 추위를 느끼고 있었다. (p.186)

- 여인은 포수의 총에 맞은 사슴이 잔명의 가쁜 숨을 헉헉대며 비틀대듯 그렇게 눈밭을 질러가고 있었다. (p.187)

<배경묘사>

(p.182 p.188 p.190)

▲ 탁월한 배경묘사

<'나'의 심리묘사>

- 내가 창문을 드르륵 열고 얼굴을 내밀 때면 그 때마다 혜자는 꼭 여인의 엉덩이 뒤쪽에 바짝 붙어 있곤 했는데 그런 혜자의 모습은 나이에 걸맞지 않게 너무나 음울하고 측은해 뵈던 것이다. (p.189)

- 나는 바보스럽게 웃으며 내 나름대로 궁금증을 풀어보려고 애썼다. 그 궁금증이란, 혜자는 왜 여인의 뒤만 바짝바짝 따르며 그 같은 눈꽃들을 새기는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p.190)

11. 작품의 주제

휴머니즘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12. 에피소드

나는 그녀의 검지 끝이 입술에 물려 있는 점으로 미루어 성에가 낀 유리창을 화판 삼아 무늬를 그리고 있었던 사람이 이 여인이라고 단정 짓고 있었다. 창문이 열리는 통에 화급스레 거뒀던 시린 손가락 끝을 입김으로 녹이고 있는 것이라고-. (p.185)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